

2) 평면구성

기후나 기타 풍속적인 요인은 각 지역마다 다른 평면구성을 낳게 하였다. 지역마다 다른 평면은 부엌·방·안침의 3공간을 기본요소로 하고 이들 공간들이 상호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순천지역의 가옥의 일반형은 소위 남부형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남 해안지역의 영향을 받지만 남동 해안형에 가까운 양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북부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는 일자형의 막살이집이 이 지역에서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부엌-방’으로 이루어진 2칸 막살이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엌-큰방-작은방’이 일자형을 이룬 초가삼간의 홑집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작은방 옆으로 1, 2칸이 부가되어 ‘부엌-안방-안침-작은방’으로 구성되는 4칸 규모가 이 지역 가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칸의 증가에 안침, 대침 또는 상침이 두 방 사이에 들면서 평면구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옥은 무엇보다 안침의 발달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홑집에 그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안침은 대부분이 1칸 규모이지만, 상류주택이나 부농의 주택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 2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3칸 막살이집에서는 안침이 없지만, 그 이상 규모에서는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반드시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마루구조가 현저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안침을 온돌방으로 개조하고 종래의 판장문 대신 격자살문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마루구조의 일자식 홑집은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겹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류주택의 경우 건물 깊이도 크고 따라서 실이 복렬화되기도 하며, 민가의 경우에도 간혹 부엌의 전·후방으로 반 칸 정도의 방이 분화되거나 안방의 뒤로 퇴칸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이러한 부엌의 겹집화 현상은 남동 해안보다 서남 해안지역의 민가에서 보편적이다.

즉 호남·호서지역은 부엌을 중심으로 실들이 응집되어 복렬화되는 대신 사랑채가 발달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민가들은 겹집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신 남동 해안지역과 같이 안침을 중심으로 실들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같은 호남지역이라 해도 서남 해안지역과는 약간 다른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부엌은 간혹 서남 해안지역과 같이 안침의 방들 사이 중간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대개 안침의 좌측, 또는 우측 단부에 위치하는 외측 단부형이다. 다만 양쪽 단부에 부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작은방의 난방과 쇠죽 아궁이를 중심으로 이후에 부엌을 새로 부가시킨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의 가옥은 남부형 민가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남 해안지역의 남부형 민가의 요소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남동 해안지역의 민가요소가 다분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